

서학개미들의 거침없는 질주

< Executive Summary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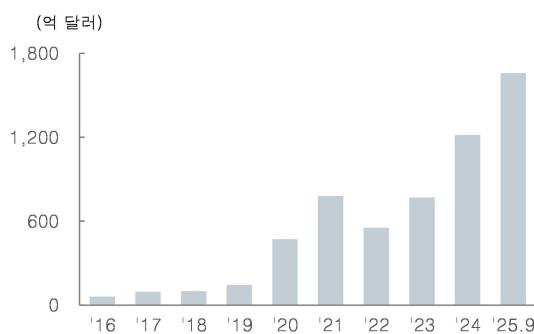
■ 해외주식투자는 美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거래금액 및 보관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

-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거래금액은 '19년 410억 달러에서 '24년 5,308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외화예수금은 '25.6월 11.4조 원으로 증가
- 해외주식 보관잔액 중 미국의 비중이 93.7%로 미국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 상장주식 중 특정 종목 편중 및 레버리지 등 고위험 추구 성향이 확대

■ 美중심 해외주식투자 쏠림 현상은 구조적 요인과 행태 변화가 결합된 현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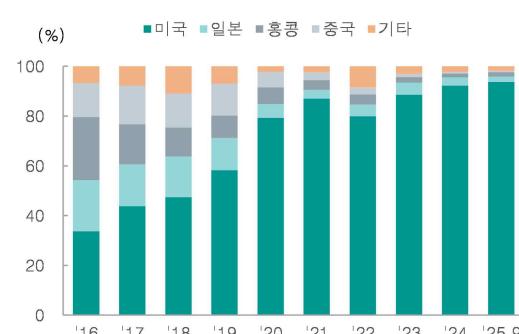
- (거시 및 금융시장) 미국은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 주요 지수 또한 꾸준히 상승하여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인식
- (투자자 심리 및 행태) 미국 대형 기술주는 성장의 상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미국 중심의 투자문화 흡수
- (규제) 국내외 시장의 거래 및 상품 관련 규제 차이가 고위험 성향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
- (접근성 및 편의성) MTS를 통한 거래 편의성 제고, 수수료·환전 비용 인하, 다양한 투자상품 확대에 따라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이 향상

그림 | 해외주식 보관잔액



자료 : 예탁결제원

그림 | 해외주식 보관잔액 국가별 비중



자료 : 예탁결제원

- 금융당국은 해외주식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 확대,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
 - '24.8월 중단되었던 미국주식 주간거래를 재개하여 투자자들의 거래 가능시간을 확대하고 2곳 이상 현지 브로커 연결, 시스템 구축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
 - 개인투자자의 고위험 투자 추종 매매 모습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 이해도를 제고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파생 사전교육과 모의 투자 의무화를 도입
- 증권사들은 투자지원 및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며 투자자 확보 경쟁 지속
 - 수탁수수료 수익 中 해외주식 수수료 비중이 29%로 확대되며 해외주식 관련 수수료 및 기타 수익이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매김
 - (투자지원 강화) AI 활용 및 해외금융사와의 제휴를 통한 투자지원 고도화 추진
 - (서비스 확장) 일반환전 및 해외여행과 투자를 연계한 서비스 출시
 - (美진출 확대) 거래 안정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을 위한 해외 인프라 강화
- 해외주식이 개인투자자들의 종장기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 성숙한 투자문화를 정착시킬 필요
 - 미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을 기반으로 미국 증시는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개인투자자 특성 고려 시 미국주식 투자 확대는 지속될 전망
 - (정부) 불법 리딩방 방지, 외화 수급 안정화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
 - (증권사) 해외주식투자의 '접근성 제공자' 역할을 넘어 교육·리스크관리 등을 수행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할 필요
 - (개인투자자) 특정 종목 및 레버리지 등 고위험 투자에 매몰되는 투자 습관에서 벗어나 위험 분산 및 장기투자 관점에서 접근

연 구 위 원 이 재 완 jwan.lee@hanafn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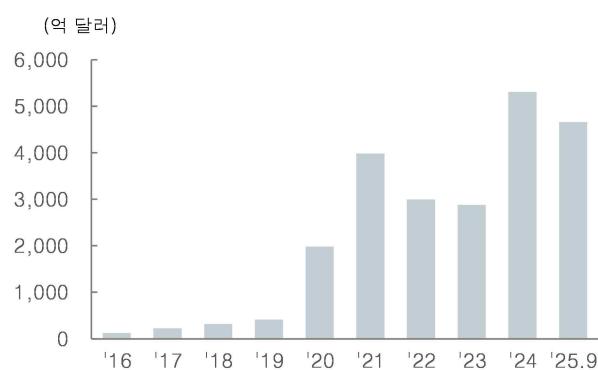
Key Words : 해외주식투자, 미국주식, 서학개미, 개인투자자

I.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확대

1. 해외주식투자 시장규모 변화 :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주요 투자처로 안착

-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주요 투자처로 자리매김
 - '94년 일반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처음 허용된 이후 '15년 '해외투자 활성화 방안'에 따른 세제혜택 제공, '20년 코로나19를 겪으며 변곡점에 도달
 - 해외주식 거래금액은 '19년 409.9억 달러에서 '20년 1,983.2억 달러, '22년 2,995.4억 달러, '24년 5,308.4억 달러, '25.9월 4,661.9억 달러로 큰 폭 증가
 - 단순 외화 보유를 넘어 해외 투자와 연계한 금융상품 수요 및 매수 기회를 노리는 투자자가 증가하며 외화예수금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
 - 해외주식 거래대금은 '24.12월 686.6억 달러를 정점으로 '25.8월 482.5억 달러로 감소 하였으나 외화예수금은 유출되지 않고 유지되며 '25.6월 11.4조 원으로 확대
- 개인투자자의 성향 변화로 펀드 등 간접투자보다는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확대
 - 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주식 보관잔액은 증가하는 반면 펀드를 통한 투자는 감소
 -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관금액은 '20년 470.5억 달러(70.2억 주)에서 '25.8월 1,441억 달러(164.1억 주)로 3배 이상 증가
 - 반면 해외주식형 펀드¹⁾ 개인 판매액은 '20년 10.7조 원에서 '25.8월 9.3조 원으로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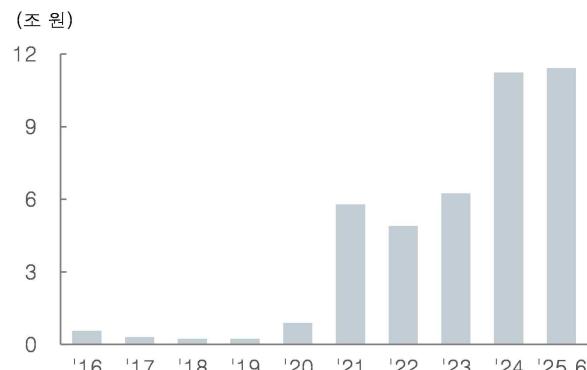
그림1 | 해외주식 거래금액



자료 : 예탁결제원
주 : 매도 및 매수금액 합

1) 주식형은 ETF를 제외한 일반 주식형 및 혼합주식형을 포함

그림2 | 증권사 외화예수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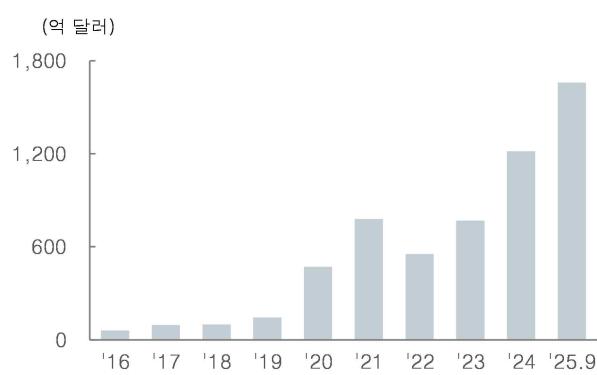


주 : 외화파생상품거래예탁예수금, 외화증권투자자예탁예수금,
외화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탁예수금 기말잔액 기준
자료 : 한국증권금융

2. 해외주식 투자 특징 :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서학개미의 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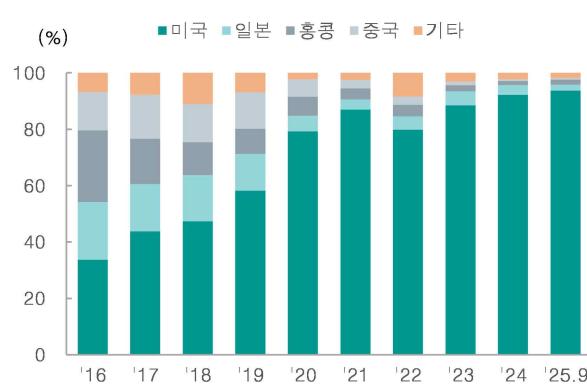
- 해외주식 투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 쓸림 현상이 심화
 - 일본, 홍콩/중국 시장에 집중했던 시기를 지나 '17년 이후 미국 주식이 핵심 투자 시장 부상하였으며 이후 미국 중심의 투자가 가속화
 - 과거에는 일본 주식이 주요 투자처였다가 '14년 개인이 중국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며 홍콩 및 중국으로 투자자금이 몰렸으나 '16년 상하이종합지수가 하락하며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작고 성장성이 큰 시장을 모색
 - '17년 이후 해외주식 보관액 中 미국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'17년 43.8%에서 '20년 79.3%, '25.9월 93.7%로 지속 증가
- 미국 상장주식 중 특정 종목 편중 및 리스크 추구 투자성향이 확대
 - 개인투자자들은 미국의 대형 기술주를 선호하는 한편,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 특정 종목에 편중되어 투자하는 성향이 확대
 -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관금액 중 주요 기술주(매그니피센트, M7²⁾) 비중³⁾은 '20년 말 34.4%에서 '24년 말 41.2%, '25.9월 35.5%로 증가
 - '25년에는 코인 관련 주와 Broadcom, Palantir 등 새로운 기술주가 부상하면서 M7과 새로운 기술주를 포함한 비중은 40.8%를 기록

그림3 | 해외주식 보관잔액



자료 : 예탁결제원

그림4 | 해외주식 보관잔액 국가별 비중



자료 : 예탁결제원

2) 2024년 FT가 선정한 미국 증시를 견인한 7대 빅테크 기업 종목(Tesla, Nvidia, Meta, Amazon, Microsoft, Alphabet, Apple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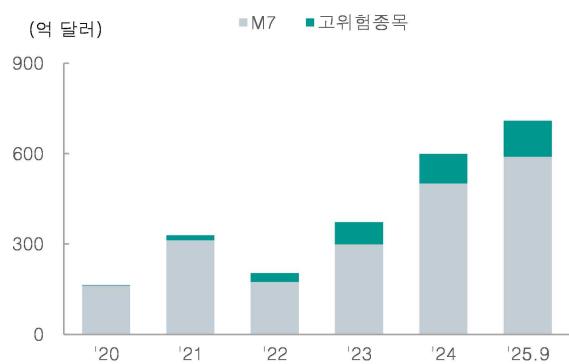
3) 7대 빅테크 종목을 추종하는 ETF 보관금액은 제외

- 또한 개인투자자의 고위험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(ETP) 투자도 빠르게 확대
 - 국내 증권사를 통한 개인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대금은 '20년 6,282조 원, '22년 1경 101조 원, '24년 1경 607조 원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갱신
 - 해외 레버리지 ETP(ETF 및 ETN) 거래대금은 '20년 20조 원에서 '24년 397조 원으로 확대
 - 고위험종목⁴⁾ 보관잔액은 '20년 1.9억 달러에서 '25.9월 120.3억 달러로 증가

3. 美중심 해외주식투자 급증 원인 : 구조적 요인과 행태 변화가 결합된 장기적 현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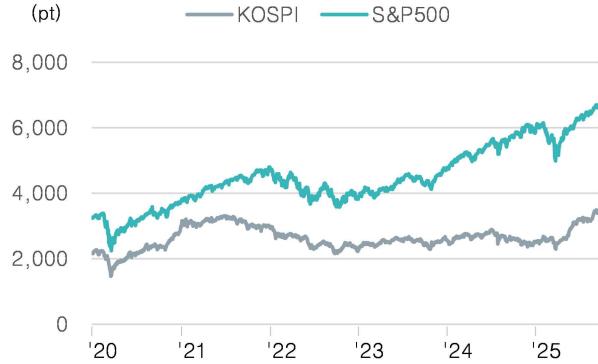
- (거시 및 금융시장) 미국은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 주요 지수 또한 꾸준히 상승하며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인식
 - 미국은 글로벌 경제 둔화 속에서도 견조한 성장을 및 고용시장 안정성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 주요 지수 또한 타 국가 지수 대비 강세를 지속
 - '20년 팬데믹 충격 이후 미국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경기를 회복하였으며 유로존 및 일본보다 일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⁵⁾
 - 주요 증시의 최근 5개년 평균 지수수익률⁶⁾은 S&P 500 14.2%, NASDAQ 20.9%, NIKKEI 11.8%인 반면 KOSPI는 3.7%로 미국 자산 선호 현상 강화

그림5 | M7 및 고위험종목 보관잔액



자료 : 예탁결제원

그림6 | KOSPI와 S&P500 지수 추이



자료 : IMF, 한국은행

4) 고위험종목 보관잔액 기준은 TOP50 종목 中 국내 비허용 3배 레버리지,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, 가상자산을 추종하는 ETF 종목

5) IMF World Economic Outlook

6) 최근 5개년 ('20~'24년) 각 지수의 증가기준 연간 수익률의 평균

-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포진해 있고 미국 기업들이 타 국가 대비 높은 주가 상승률 및 주주환원율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 선호에 부합
 - 미국은 AI,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Fortune이 선정한 전 세계 우수 기업 500개 중 미국 기업이 138개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, Top10의 절반 이상 차지
 - 미국 대형주는 대부분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1~3대 주주를 차지하고 있어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부양에 나설 유인이 높아 주주환원율이 높은 편
- SEC규제 아래 공시 시스템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애널리스트 리포트 및 관련 데이터 접근성이 높아 투자자들이 정보 비대칭성 우려가 상대적으로 低
- (투자자 심리 및 행태) 미국 테크 대형주는 성장의 상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미국 중심의 투자문화 흡수
 -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美기술주들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지배적인 힘을 발휘하며 미국 주식은 고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경험적 인식이 강화
 -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주 트렌드가 FAANG, MAMAA, M7, BATMMAAN등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미국 기업 중심으로 지속 진화
 - 콘텐츠 플랫폼과 소통 기능이 결합되어 정보의 확산 및 행동 유도력이 확대되었으며 미국 주식 관련 콘텐츠가 확산되며 개인투자자의 관심도 증가
 - 미국주식에 특화된 콘텐츠 플랫폼 채널이 증가하고 YouTube, x, 인스타 등을 활용한 상세분석 및 실시간 의견 확산이 가능해 플랫폼 기반의 관심이 매매로 전환

표1 | Fortune이 선정한 글로벌 우수기업 Top10

순위	기업명	본사 소재지
1	Walmart	미국
2	Amazon.com	미국
3	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	중국
4	Saudi Aramco	사우디아라비아
5	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	중국
6	Sinopec Group	중국
7	UnitedHealth Group	미국
8	Apple.Inc	미국
9	CVS Health	미국
10	Berkshire Hathaway	미국

자료 : Fortune Global 500(2025)

표2 | 시장 주도 기술주의 변화

시기	트렌드	내용
2010년대	FAANG	- 소셜미디어, 전자상거래, OTT 중심 - Facebook, Apple, Amazon, Netflix, Google
2020년대 초	MAMAA	- 클라우드, AI 중심 확대 - Meta, Apple, Microsoft, Amazon, Alphabet
2020년대 중반	M7	- 하드웨어, AI, 전기차 포함 - Microsoft, Apple, Amazon, Alphabet, Nvidia, Tesla, Meta
최근		- AI, 생성형 AI 관련 기업 / 반도체, 칩셋 전문 기업 - 그린, 에너지 테크 / SaaS - Web3 / 블록체인 등

자료 : 하나금융연구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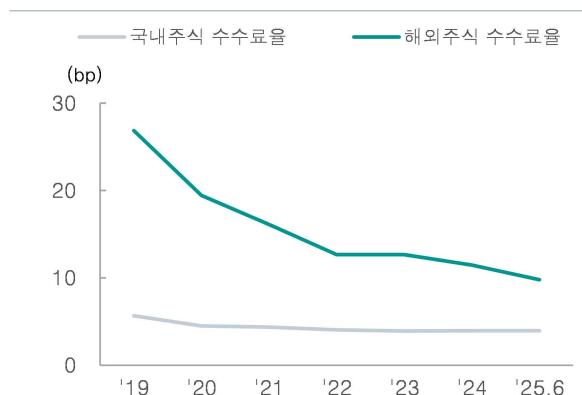
- (규제) 국내외 시장의 거래 및 상품관련 규제 차이가 고위험 성향 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
 -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는 기본예탁금(1,000만 원) 및 온라인교육 이수 등 진입 규제가 있는 반면, 해외상장 ETF에는 국내 규제가 미적용
 - 또한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는 레버리지 비율을 2배 이내만 허용, 종목 구성에 제한이 있으나 미국 및 유럽은 레버리지 비율 및 종목 구성에 제한이 없음
- (접근성 및 편의성) MTS 통한 거래 편의성 제고, 수수료·환전 비용 인하, ETF 등 다양한 투자상품 확대에 따라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 향상
 - 해외주식 통합증거금 서비스,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, 실시간 달러 환전, 자동정산 시스템 등 거래서비스 확대뿐만 해외주식 양도세 무료 신고 대행 등 추진
 - 해외주식 수수료율 인하, 환전수수료 인하 등으로 거래비용이 큰 폭 절감되면서 심리적 투자 접근성 또한 개선
 - 해외주식 수수료율⁷⁾은 '19년 27bp에서 '22년 13bp, '25.6월 10bp 수준으로 하락
 - 글로벌 시황 분석보고서 제공, 미국 중심의 해외주식 기업분석 자료 발간,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투자상품 제시 등 다양한 해외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
 -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국내외 ETF수가 확대되면서 분산투자 투자수요도 총족
 - 국내 상장 해외 ETF 종목수는 '20년말 131개에서 '24년 말 402개로 증가
 -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는 상장 주식수 보다 많은 4,300개 이상('25.8기준)

표3 | 국내 및 해외시장 ETF 비교

구분	국내	미국
레버리지 배율	+/- 2배 이내만 허용	명시적 제한 없음 (SEC 개별 승인) '17년 4배 종목 출시
단일종목	혼합형만 가능 (단일종목 30% 이내)	구성 종목 제한 없음
가장자산(현물)	불가 (선물만 가능)	가능

자료 : 자본시장연구원

그림7 | 해외주식 수수료율 추이



자료 : 금융감독원

7) 증권사 전체 외화증권 거래금액 대비 외화증권 수수료로 산출('25.6월 기준)

II. 최근 규제 동향 및 증권사의 움직임

1. 해외주식투자 관련 규제 : 거래편의성 및 보호조치 강화

- 미국주식 주간거래 재개로 투자자들의 거래 가능시간을 확대하여 편의성 제고
 - 미국주식 주간거래는 '24.8월 거래를 중개하던 대체거래소 블루옵션의 시스템 오류로 대규모 거래 취소 사태가 발생하며 중단
 - 주문이 취소된 계좌는 약 9만개, 취소된 거래 규모는 총 6,333억 원 수준
 -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'25년 11월 4일부터 미국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개할 계획
 - 기존 한국시각·비서머타임 기준 프리마켓(18시~23시 30분), 정규장(23시 30분~6시), 애프터마켓(6시~9시)으로 운영되던 거래시간에 추가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까지 거래 가능(정규장 외 애프터마켓 및 주간거래 운영시간은 증권사별 상이)
 - 증권사들은 2곳 이상 미국 현지 브로커, 대체거래소와 주문 회선을 연결하고 복구용 롤백 시스템 구축을 강화
- 해외파생 사전교육과 모의 투자 의무화를 도입하여 해외 위험 투자자 보호 강화
 - 개인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(ETF 및 ETN) 투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며 손실 우려 및 과도한 추종매매 모습이 확대⁸⁾
 -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손익은 지속적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('20년 -5,375 억 원, '22년 -5,102억 원, '24년 -3,899억 원)
 - 해외 레버리지 ETP 거래계좌는 '20년 15.5만 좌, '22년 90.5만 좌, '24년 196.7만 좌로 확대
 - 고위험 해외 상품에 대한 투자자 이해도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'25.12월부터 해외 파생상품 투자 시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가 의무화
 - 해외 장내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(ETF), 상장지수증권(ETN)에 투자하는 신규 일반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적용
 -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자는 상품의 구조와 주요 위험 등 투자지식을 습득하도록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해외 파생상품 투자자는 모의 거래 또한 이수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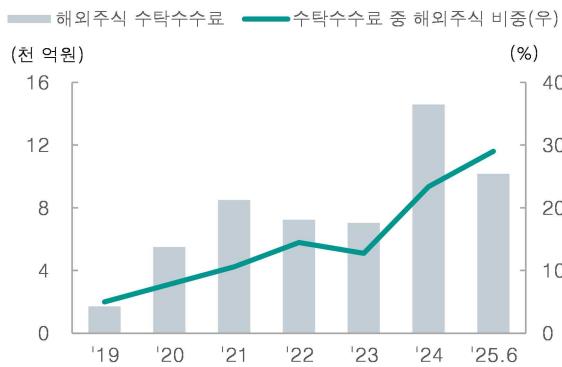
8) 금융감독원, 보도자료, 2025.5

2. 해외주식투자 관련 증권사 동향 : 투자지원 및 연계 서비스 경쟁 확대

■ 해외주식 관련 수수료 및 기타 수익이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매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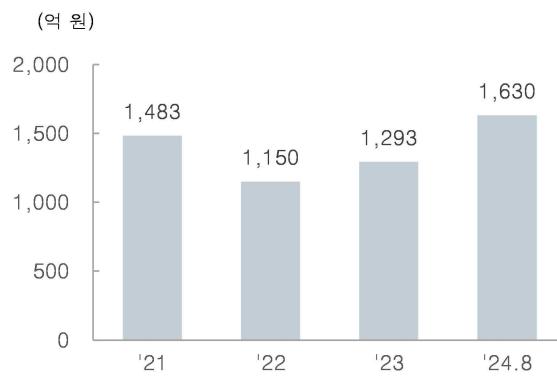
-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급증하며 매년 최대치를 경신함에 따라 해외주식수수료가 증권사의 중요 수익원으로 부상
 - 해외주식 수탁수수료는 '20년 0.6조 원에서 '24년 1.5조 원, '25.6월 1.0조 원으로 증가
 - 증권사의 수탁수수료 수익 中 해외주식 수수료 비중은 '20년 7.8%에서 '24년 23.4%, '25년 6월 29.0%로 확대
 - 국내 주식 증개수수료는 4bp 수준으로 낮아진 가운데 해외주식 증개수수료는 지속 낮아지고 있으나 10bp 내외의 국내 대비 높은 수준에서 수수료율이 형성
- 증개수수료 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 및 환차익 등 외환 관련 수익 또한 확대
 - 9개 증권사(키움, 미래에셋, 삼성, NH, KB, 한투, 신한, 토스, 카카오페이지)의 연간 달러 환전 수수료수익은 '21년 1,483억 원에서 '24.8월 1,630억 원으로 증가⁹⁾
-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증개에서 시장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마케팅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영역 및 인프라 구축으로 경쟁영역을 확대
 - 증권사들은 거래·환전 수수료 인하 및 무료 정책 등 공격적 영업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넘어 연계 서비스 출시 및 기술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시도

그림8 | 해외주식 수탁수수료 추이



자료 : 금융감독원

그림9 | 주요 증권사 환전수익



자료 :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

주 : 키움, 미래, 삼성, NH, KB, 한투, 신한, 토스, 카카오페이지 기준

9)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

■ (투자지원 강화) AI 활용 및 해외금융사와의 제휴를 통한 투자지원 고도화

- AI를 활용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며 해외 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적시성을 제고
 - (미래에셋) ‘어닝콜 읽어주는 AI’ 서비스, ‘해외공시 실시간 번역·요약 서비스’를 런칭해 주요 공시가 발표된 즉시 해당 정보를 제공, 미국증시 중소형 종목으로 확장
 - (토스) AI기반 ‘해외기업 실시간 어닝콜 서비스’를 런칭해 투자자들에게 실시간 해외기업 어닝콜 스트리밍 및 국문 번역·요약 서비스 제공
 - (삼성) AI를 통해 로이터 통신사의 글로벌 최신뉴스를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요약
 - (KB) AI를 활용해 해외 주요기업의 실적발표 내용 요약과 핵심 정보 담은 AI 리포트를 제공, 미국증시에서 다루는 종목을 확대
- 해외 금융사와의 제휴를 통해 전문 투자정보와 투자전략 제공을 강화
 - (하나) IT 및 AI 분야에 강점을 가진 美증권사 Wedbush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국 애널리스트 초청 세미나 및 리포트를 독점 제공하며 리서치 서비스 강화
 - (삼성) 글로벌 금융사 Cantor 및 Strategas와 제휴를 체결해 미국 주식 정보를 제공
 - (한국투자) 글로벌 금융사 Stifel Financial 및 Goldman Sachs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국 현지 리서치 리포트를 독점적으로 제공
 - (NH투자) 美금융 미디어 Benzinga, Seeking Alpha와 제휴를 통해 미국 종목의 주가 급등락 원인을 실시간을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

표4 | 증권사 해외주식 관련 정보서비스

증권사	주요 서비스
하나	- 美 증권사와 제휴를 통해 미국 애널리스트 초청 세미나 및 리서치 리포트 제공
토스	- AI 기반 해외기업 실시간 어닝콜 서비스 - 이모지를 표시하며 투자자들 간의 소통 가능
삼성	- AI를 통해 글로벌 최신뉴스 실시간 번역·요약 - 글로벌 금융사와 제휴를 통한 정보 제공
미래에셋	- AI 기반 컨퍼런스콜 내용 번역·요약 - 4개국 해외 공시 실시간 번역
한국투자	- 글로벌 금융사(Stifel Financial, Goldman Sachs)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국 현지 리서치 리포트 제공
KB	- AI를 활용하여 주요기업의 실적발표 내용 및 핵심 정보를 담은 리포트 제공
NH투자	- 美 금융 미디어와 제휴를 통해 미국 종목의 주가 급등락 원인 분석

자료 : 언론보도

표5 | 국내 증권사의 미국 주식 관련 서비스 도입 이력

시기	서비스
2011.02	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(‘14년부터 확산)
2018.03	통합증거금 제도(해외주식 구매 후, 익영업일 자동 환전)
2018.10	소수점 투자서비스(미국 상장주식 및 ETF 소수단위 매매)
2020.11	미국주식 시세 실시간 무료 조회
2021.06	프리마켓(18~22시) 지정가 예약주문
2022.02	주간거래 지원 (10:00~18:00)
2024.11	외화환전·결제서비스와 해외주식 투자 연결 서비스

자료 : NICE신용평가, 언론보도

■ (서비스 확장) 일반환전 및 해외여행과 투자를 연계한 서비스 출시

- 증권사들은 해외주식거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고객유치를 위해 일반환전 인가를 확보하고 연계서비스 기반을 마련
 - '23년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면서 증권사의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하면서 증권사도 투자 외에 여행·유학 등에 필요한 환전 가능
 - 키움, 신한투자, 삼성, NH투자, 미래에셋, KB증권이 일반환전 인가를 획득하였으며 하나증권 등도 인가 획득을 추진 중
- 해외주식투자 및 해외여행 서비스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전 및 해외투자의 편의성 제고
 - 하나, 삼성증권 등은 은행의 외화 통장을 연동하여 해외주식투자 및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편리하게 투자 및 여행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
 - 하나, NH투자, 유안타증권 등은 트래블카드와 연계하여 해외여행시 트래블카드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전 및 투자통합 서비스를 제공

■ (美 현지 진출 확대) 거래 안정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을 위한 해외 인프라 강화

- 현재 증권사들 대부분은 현지 브로커를 통해 미국 내 거래소로 주문을 전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간 수수료 및 주문지연 우려 등의 제약요소 발생
 - '22년부터 '25년까지 거래금액 상위 10개 증권사(미래, 한국, 삼성, NH, 신한, 메리츠, 유안타, 하나, 교보)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서비스 장애는 총 53건으로 이 중 30건이 해외 브로커나 거래소 문제로 발생¹⁰⁾
 - 증권사들은 현지 브로커와 ATS(대체거래소)를 복수로 계약해 운용하고 있으나 전산장애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은 지속
- 해외주식 거래량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미국 현지법인 설립·인수를 통한 브로커 딜러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움직임 확대
 - 미래에셋증권은 증개 및 청산까지 가능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한투자, 한국 투자, KB, NH투자, 토스증권 등이 증개 라이선스를 취득, 키움증권 등도 라이선스를 위한 현지법인 확보를 고심 중

10)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, 2025.10

III. 전망 및 시사점

- 미국 테크 기업 중심의 해외주식투자 확대 흐름이 이어질 전망
 - 미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을 기반으로 미국 증시는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
 - 미국 정부의 반도체, 기술 인프라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산업정책은 향후 미국 기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가능성
 - AI, 디지털 인프라 설비투자 등이 확대되면서 미국 기업들의 성장 엔진이 강화되는 흐름
 - 미국이 AI 등 미래 패러다임을 주도함에 따라 해외 대형 기술주 종목을 선호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특성 고려 시 미국주식 투자 확대는 지속될 전망
 - 지난 10년간('13~'23년) 민간기업의 AI 투자 규모는 미국이 3,352.4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1/45 수준인 72.5억 달러¹¹⁾에 그치며 큰 격차가 발생
- 주요 투자처로 부상한 미국주식이 개인투자자의 중장기 자산 형성의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 성숙한 투자문화를 정착시킬 필요
 - (정부) 불법 리딩방 방지, 외화 수급 안정화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
 - 해외주식 리딩방 및 유튜브 등 불법 투자 권유에 대한 단속 및 모니터링 강화
 - 해외주식 확대가 외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¹²⁾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
 - (금융회사) 해외주식투자의 ‘접근성 제공자’ 역할을 넘어 교육·리스크관리 등을 수행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할 필요
 - 원클릭·모바일 중심의 매매 흐름 편의성을 강화하고 거래 안정성·체결 속도 최적화
 - 변동성 및 환노출을 고려한 솔루션 및 해외 투자상품 라인업 확대
 - 해외자산 관련 디지털 자문 강화 및 해외주식 입문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
 - (개인투자자) 특정 종목 및 레버리지 등 고위험투자에 매몰되는 투자습관을 버리고 위험분산 및 장기투자 관점에서 접근
 - M7, 코인, 레버리지 ETF 등 일부 종목에 과도하게 편중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

11)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24

12) 한국은행, 통화신용정책보고서, 2024.09

[참고문헌]

금융감독원(2025.5), 해외 고위험 상품의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금융감독원(2025.9), 美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 재개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.

자본시장연구원(2024.07),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현황 및 증권업 동향

자본시장연구원(2024.10),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특성 및 시사점

토스증권(2024.09) 왜 미국 주식인가

하나금융연구소(2025.02), 新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는 개인투자자

하나금융연구소(2025.04), 2025년 자금흐름 전망

한국은행(2024.09), 통화신용정책보고서

한국은행(2025.03), 서학개미, 이제는 분산투자가 필요할 때

NICE 신용평가(2024.12), 국내증시에서 미국증시로의 머니무브가 증권업에 미치는 영향

IMF(2024.4), World Economic Outlook 2024

Stanford HAI(2024),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24

하나Knowledge⁺

04538 서울특별시 종구 을지로 66 (을지로 2가,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8층)

TEL 02-2002-2200

e-mail hanaif@hanafn.com

<http://www.hanaif.re.kr>

